



## 브릭스 시장 선점을 위한 벤처기업의 첫걸음

‘중남미 I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성공적 개최

### 협

회는 최근 BRICs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벤처기업의 중남미 IT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중남미 최대 IT 정보통신전 ‘Telexpo 2005 전시회’와 ‘1:1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된 ‘중남미 I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돌아왔다.

협회 주관의 ‘중남미 I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스콧정보통신(대표 김찬우), 오픈포유(대표 신규식), 미래텔레콤(대표 고재권), 어드밴텍(대표 최영준), 뉴젠텔레콤(대표 홍종원), 오픈브이알(대표 박성주), 미라클소프트웨어(대표 이원교), 애니필(대표 신민규), 일신테크(대표 권혁운), 경진일렉트론(대표 이기진), 모비언스(대표 안재우), 럭스퍼트(대표 변재오), 트루라인시스템즈(대표 이건웅), 벨웨이브(대표 양기곤), 무하디지털(대표 김성호) 등 15개 벤처기업이 참가했다.

**한국관, 현지 바이어 및 관람객으로부터 호응**  
 제주 소재 업체인 미래텔레콤은 소프트웨어 타입의 DVR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Claro(브라질 정보통신 시장의 22% 점유) 등 현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전시회 마지막 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브라질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보여 주었다.

또한 GSM 단말기 제조업체인 뉴젠텔레콤은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눈길을 끌며 멕시코 등 중남미 전 지역의 현지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업체인 미라클소프트웨어는 행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상담 전략을 펼쳐 공식 일정 이외에 현지 기업과 개별 미팅을 가지는 등 브라질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GPS 및 Telematics 개발·제조 업체인 오픈포유의 신규식 대표는 “한국관 공동 부스가 오픈 부스로 진행되어, 현지 참관객들의 동선 확보 면에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매우 훌륭했고 제품 홍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앞으로 협회가 진행하는 해외 전시 사업에는 또다시 참가하고 싶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스콧정보통신의 노연명 상무는 “2004년 협회가 진행한 ‘넷월드 인터럽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참가 이후,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



2 3



4 5



도 진출하게 되었다”며 “이번 중남미 사업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회, 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협회는 행사 이후 참가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IT관련 중소기업 컨설팅사인 ARIMEX(대표 황보덕) 및 마케팅 에이전시인 BIZDRAGON(대표 오동희)과 공동 사업 추진을 합의하였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브라질 한인 상공 회의소 최태훈 회장과와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참가업체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VIA News 및 Information News Brazil 등 현지 유력 매체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참가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는 ‘호주 세빛 2003’을 시작으로 ‘오픈부스(Open Booth Korea Pavilion)’ 타입의 한국관을 설치하여 해외 전시 사업에 참가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제품 홍보 및 부스 내에서 기업과의 미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Telexpo 2005’ 전시 부스 또한 현지

참관객들의 효과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진행되어 한국 참가업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한편, ‘Telexpo 2005 전시회’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노키아, 모토로라, 쉘컴 등 세계 선두이동통신사와 지멘스, 루스트레크놀로지 등 네트워크 관련 회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IT 전문 전시회로서 국내에서 삼성, LG 등도 참가한 IT 전문 Trade Show이다.

1. 미라클소프트웨어(대표 이원교)가 전시회에 출품한 Internal Network Security System인 SubGATE에 대해 현지 기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GPS 및 Telematics 등 위성 통신 관련 전문 벤처기업인 오픈포유(대표 신규식)가 전시회 부스에 방문한 현지 기업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타입의 DVR 개발업체인 미래텔레콤(대표 고재권)이 브라질 통신 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Claro 관계자와 기술이전 등 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 협회 공동 부스를 배경으로 한 한국 참가업체 관계자들의 단체기념촬영
5.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고 있는 참관객들의 모습